

## Part 4 : For 2021 피램 국어 교재 및 강의 홍보

### ① 교재 홍보

출판 4개월만에 10,000부 돌파! 1년만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P.I.R.A.M 국어의 개정판이 나옵니다.

올해 교재는 시리즈 형태로 기획중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P.I.R.A.M 국어 개념편 (문학/비문학편) - 총 2권 (1월 중순 출판 예정)  
: 올해의 P.I.R.A.M 국어 교재와 같은 형식입니다.

다만 개정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0버전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목표는 '더 자세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엄밀하게'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완벽한 국어영역 독학서'를 만드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고가 완성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P.I.R.A.M 국어 기출문제집 (문학/비문학편 상, 하) - 총 4권 (2월말~3월초 출판 예정)  
: 10개년 기출문제집입니다. 전 지문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연도별, 난이도별, 제재별, 구조별 구성이 아닌 모든 것을 고려한 'Daily' 구성을 만드려고 합니다.

계획을 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날짜에 맞춰 공부해주시면, 기출 공부는 정말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개념편에 있는 지문과 겹치는 지문이 많아 새 책을 구매하기 아쉬운 분들을 위해 개념편에 없는 지문만을 이용한 '기출문제집-개념편 외전'도 출판하려 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P.I.R.A.M 국어 N제 - 미정 (5월말~6월중순 출판 예정)  
: 기출에 질리신 분들을 위한 비평가원 문제집입니다. 교육청, 사관학교, 릿잇, 피셋 등 다양한 문제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문 선별 후 양을 보고 단권으로 출판할 수도, 여러 권으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비평가원 기출들을 피램의 해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N제 시장 장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집필하겠습니다.

### ② 인터넷 강의 홍보

국어 영역 베스트셀러 P.I.R.A.M 국어 저자의 모든 것.  
- 국어가 어려워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려워졌냐고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문이 길었다고 합니다. 화작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라고 말하면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김민재(피램)의 강의는 다릅니다.  
- '왜'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합니다.  
: 우리는 지문 어느 부분이 근거가 되는지, '왜' 답이 4번인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읽고 풀면 4번을 고를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해설만 하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행동 양식 하나하나를 가르칩니다.

-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어 영역의 80분은 아주 잔인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두 써먹을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행동 양식만을 가르칩니다.

- 지문 독해뿐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책임집니다.  
: '지문을 잘 읽었으면 당연히 이게 답이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해설을 하지 않습니다.  
'잘 읽은' 지문 내용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활용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시험장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문제풀이 태도를 가르칩니다.

- 기출분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 지문을 요약하고, 답을 찾는 것은 기출분석이 아닙니다.  
기출에서 얻어야 할 태도, 평가원의 출제방식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수동적인 강의 수강이 아닌, 능동적인 국어 공부법을 가르칩니다.

### 커리큘럼

For 2021 피램 인강 시리즈	P step	I step	R step	A step	M step	기타
비문학(독서)	생각의 틀 1 - 도구 정리	생각의 틀 2 - 태도 정리	생각 강화	지속 훈련	P:NALE	학력평가 & 모의평가 해설강의 + 기타 강좌 (추후 공지)
문학	생각의 틀 1 - 도구 정리	생각의 틀 2 - 태도 정리	생각 강화			
화법과 작문		생각의 틀 - 태도 정리 (2월 중순)				
언어(문법)		생각의 틀 - 태도 정리 (5월 중순)				
개강	1월 초	1월 말	2월 말	5월 중순	9월 모평 이후	

\* 모든 강의는 기본적으로 현장 ver이고, 추가적으로 스튜디오 강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현장 진도에 맞춰 일주일에 2~3강씩 업로드됩니다. (강좌마다 상이)

\* 기타 강좌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강의들입니다. 확정될 때마다 오픈됩니다.

P(reliminary) step (생각의 틀 1 - 도구 정리)

비문학(독서) - 본격적인 비문학 공부를 위한 기본 도구 정리 (6강 예정)

문학 -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위한 기본 도구 정리 (4강 예정)

: 단순 스킬 강좌가 아닙니다. 정말 당연하지만 치명적인 내용만을 가르칩니다.

I(mprove) step (생각의 틀 2 - 태도 정리)

비문학(독서) - 가장 실전적, 필연적인 비문학 독해 & 문제풀이 태도 정립 (25강 예정)

문학 - 가장 실전적인 문학 독해 & 문제풀이 태도 정립 (20강 예정)

화법과 작문 - 가장 실전적인 화법과 작문 독해 & 문제풀이 태도 정립 (6강 예정)

언어(문법) - 단순 개념 정리가 아닌, 실전적인 문제풀이 태도 정립 (4강 예정)

: 시험장에서 할 수 없는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합니다.

R step (생각 강화)

비문학(독서) - 평가원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도 요소들 정리 (10강 예정)

문학 - 평가원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도 요소들 정리 (5강 예정)

A step (지옥 훈련)

비문학(독서) - 평가원 기출 외 고난도 지문들을 통해 독해 태도 최종 정리 (20강 예정)

M step (P!NALE - P램의 finale)

전 영역 - 모의평가 분석 및 행동 양식 총정리 (10강 예정)

**\*수강 대상\***

- ① 국어를 대하는 '생각의 틀'이 없는 학생
- ②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학생
- ③ 생각 없는 양치기가 아닌, 목적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 ④ 국어를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

③ 현장 강의 홍보

- 피램, 이제 강의로 만나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강사 소개\***

출판 첫해 국어 영역 베스트셀러! P.I.R.A.M 국어 단독 저자

- 이름 : 김민재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문과대학
- P.I.R.A.M 국어 비문학편/문학편 단독 저자
- 오르비학원 국어영역 강사
- 오르비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강의 특징\***

-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 ① 단순한 지문 구조를 배우는 것에서 벗어나, 지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생각의 틀' 제시
- ② 답의 근거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과정' 제시
- ③ 생각의 틀을 이용한,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올바른 공부법' 제시
- ④ 2019년 폭발적 성장을 통해 얻은 수험생활 및 공부 관련 노하우 제시

**\*강의 안내\***

- ① 강의 영역 : 독서, 문학 전 영역 (화법과 작문, 문법은 숙제 및 수업 중간 특강 형식으로 다룸)
- ② 강의 교재 : P.I.R.A.M 국어 시리즈 내용을 활용한 자체 교재 (매 수업시간 배부)
- ③ 강의 시간 : 3시간 30분
- ④ 수강료 : 4회 기준 24만원
- ⑤ 강의 특전 : 4회 이상 수강시, 해당 시즌 교재 무료 제공  
Season 0 → 피램 국어 개념편  
Season 1 → 피램 국어 개념편 + 기출문제집  
Season 2,3 → 피램 국어 기출문제집 + 피램 국어 N제  
Final → 피램 국어 시리즈 중 원하는 교재 2시리즈 제공  
\*피램 국어 개념편 (출판 확정) : 문학편, 비문학편 (총 2권)  
\*피램 국어 기출문제집 (출판 확정) : 문학편 上, 下 / 비문학편 上, 下 (총 4권)  
\*피램 국어 N제 (출판 계획중) : 교육청+사관편, Psat+Leet편 (총 2권)
- ⑥ 특이사항 : 수업의 일부는 인터넷 강의를 위해 촬영되고, 편집 후 업로드 될 수 있습니다.

**\*강의 일정 (전체)\***

강의 시간 : 대치 오르비 → 일요일 오후 1:30~5:00  
/강남 오르비 → 일요일 오후 6:30~10:00

- Season 0 (기본 행동양식 정리) : 1/5(일) ~ 3/1(일) → 8회 (1/26 설연휴 휴강)
- Season 1 (기출문제 완전 정복) : 3/8(일) ~ 4/26(일) → 8회
- Season 2 (기출문제 및 고난도 지문 완전 정복) : 5/17(일) ~ 7/5(일) → 8회
- Season 3 (최종 행동양식 정리) : 7/26(일) ~ 8/16(일) → 4회
- FINAL (실전 감각 극대화) : 8/30(일) ~ 11/15(일) → 12회

**\*Season 0 상세 커리큘럼\* (1/26 설연휴 휴강)**

날짜	수업 내용
1/5 (일)	비문학 기본 도구 정리 + 문학 기본 도구 정리
1/12 (일)	비문학 기본 도구 정리 + 문학 기본 도구 정리
1/19 (일)	비문학 생각의 틀 + 문학 생각의 틀
2/2 (일)	비문학 생각의 틀 + 문학 생각의 틀
2/9 (일)	비문학 생각의 틀 + 문학 생각의 틀
2/16 (일)	비문학 생각의 틀 + 문학 생각의 틀 + 화법과 작문 생각의 틀
2/23 (일)	비문학 생각의 틀 + 문학 생각의 틀 + 화법과 작문 생각의 틀
3/1 (일)	비문학 생각의 틀 + 문학 생각의 틀 + 화법과 작문 생각의 틀

**\*과제 및 관리 프로그램 (Season 0)\***

- ① 고 1,2 기출 및 고난도 읽기 자료를 이용한 텍스트 적응력 높이기 자료
- ② 기출 daily 숙제 → 13개년치 평가원 기출문제(08~20)를 활용한 기출분석 자료
- ③ 수업 전 mini test → 15분 내외의 짧은 테스트 시행.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제공
- ④ 1:1 대면 상담 및 질의응답
- ⑤ 추가 콘텐츠 (확정 후 공지)

**\*수강 대상\***

- ① 국어를 대하는 '생각의 틀'이 없는 학생
- ②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학생
- ③ 생각 없는 양치기가 아닌, 목적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 ④ 국어를 재밌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

→ 최근 수능 국어 영역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도저히 잡히지 않는 산처럼 느껴집니다. 손에 잡히는대로 많이 풀어도, 좋다는 강의/교재를 봐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변하기 위해선, 내 생각의 틀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하는 생각들, 그 생각의 틀을 보여 드립니다. 아주 적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 읽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드립니다. 배운 내용을 연습하는 것만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어를 '재밌게' 공부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저와 함께 재밌게 공부하고, 행복한 수능 1교시를 만들어 봅시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6.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이 ㉡이라면 ㉠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19. 다음은 밑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 기록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후 심화 활동]**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

○상황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이 참이라고 믿지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

㉠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게 될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 병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어떤 색인지 확인이 안 된 수첩이 병의 집에 있다.

병과 정은 ㉡와 ㉢ 이외에는 ㉠과 관련이 있는 어떤 명제도 새롭게 알게 되지 않고,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

○적용  
[A]

- ① 병이 ㉠과 관련이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겠군.
- ② 병이 ㉡만을 알게 된다면, 그 후에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겠군.
- ③ 병이 ㉡를 알게 된 후에 ㉢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더 약해질 수 있겠군.
- ④ 병이 ㉡와 ㉢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와 ㉢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변화하겠군.
- ⑤ 병과 정이 ㉡를 알게 되기 전에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면, ㉡만을 알게 된 후에는 ㉠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 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겠군.

2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 ② ㉡: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 ③ ㉢: 우리는 지금 아이를 봐 줄 분을 찾고 있다.
- ④ ㉣: 그는 젊었을 때 얻은 병을 아직 못 고쳤다.
- ⑤ ㉤: 매장에서 현 냉장고를 새 선풍기와 바꿨다.

(가)

동녘 두던 밭과 크나큰 너른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흰 빗치 되야 있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하자스라  
 붉은 게 여물고 높은 둑기 술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홀 긴 물래에 밤불이 불가지니  
 ㉠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미러오니  
 ㉡ 돛든비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쫓는 당시로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라

[A]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잠시 이실 거시런들  
 적막히 다든 문애 내 분으로 드러오라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모재(茅齋)\*에 빗썩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나  
 청준(淸樽)을 밧째 열고 큰 잔의 ㄱ득 브어  
 ㉣ 죽엽(竹葉) ㄱ는 술를 들빋 조차 거후로니  
 표연흔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호야 들을 보고 밧치닷다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 몸이 한가흐나 귀 눈은 겨울 업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룰소나  
 ㉥ 강호 어조(魚鳥)애 새 밧세 깎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서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이 몸이 이러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쌌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 \* 호두포 : 예산현의 무한천 하류.
- \* 애내성 :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
- \* 사조 : 사사로이 비춤.
- \* 모재 : 띠로 지붕을 이어 지은 집.
- \* 옥당금마 : 관직 생활.
- \* 몽혼 : 꿈.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부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룡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 의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건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 성사 : 옛날 장군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흐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계'와 살진 '눌은 둥'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물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23.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룡'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25.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 ②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어 '강호'에 은거하려는 소망을 나타낸다.
- ③ ㉠은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는 자세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강호'에 은거하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 ④ ㉠은 '내가' '강호'에서 늙어 감에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은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 ⑤ ㉠은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며 '강호'에 은거하려는 희망을 나타낸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종 간보다 이종 간 MHC 분자의 차이가 더 크다.
-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이종 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④ 포유동물은 과거에 어느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 ⑤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하여 RNA를 DNA로 바꾼다.

27. ㉣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정기 교체가 용이해야 한다.
- ② 이식편은 대체를 하려는 장기와 크기가 유사해야 한다.
- ③ 이식편과 수혜자 사이의 유전적 거리를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식편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⑤ 이식편이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28.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최근에 줄기 세포 연구와 3D 프린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줄기 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만을 이용하여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니 폐, 미니 심장 등의 개발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다.

- ① 전자 기기 인공 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 ③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 ④ 이종 이식편과 달리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겠군.
- ⑤ 이종 이식편과 달리 자연항체에 의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한다.
- ② ㉡은 ㉠과 달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없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 ④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⑤ ㉠과 ㉡은 둘 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의 세포를 감염시켜 파괴한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 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넣음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쫓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도 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암생이처럼 기러케 쓸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쥘 채 서 있었다.

— 넌큼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제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중략)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샘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컷등에 연필을 쫓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 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더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에다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낫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했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3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흑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 ② 아버지는 소주 두 병을 덜 받아 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 ③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흑부리 영감과 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 ④ 흑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빠지만, '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마지못해 '나'의 염려를 덜어 주었다.
- ⑤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 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 노력했다.

31.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겠어.
- ②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남은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 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 ③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나’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던 경험은,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 ④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 흑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 ⑤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3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 ① ㉠: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하여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겠군.
- ② ㉡: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하여 독자는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③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하겠군.
- ④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흑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고 생각한 독자라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 ⑤ ㉤: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는 그 심리에 공감하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곧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머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

[A]

들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덕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비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우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차취가 ㉠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33.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35.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 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37~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11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확실히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①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②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③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④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⑦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⑤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3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3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39.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0. 밑줄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4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뭉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사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굻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입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먼저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의 주장을 체크하는 건 숨 쉬듯이 할 수 있죠? 이들은 입의의 명제에 대해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네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아주 친절하게도, 그리고 반드시 이해해달라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니 그 '세 가지' 태도가 '참, 거짓, 둘 다 아님'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네요! 저와 완전 똑같이 읽고 있죠?

그런데 '베이즈주의자'라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들은 믿음이 '정도의 문제'라고 주장하네요. 역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예시를 들어주네요. 단순히 '참'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참'이라고 믿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아하 이렇게 베이즈주의자들은 '믿음의 정도'를 통해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이 지문은 '믿음'에 대한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베이즈주의자의 '믿음의 정도'가 핵심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화제 잡아두고 가 봅시다.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의 비교 포인트를 체크하는 건 자연스레 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입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입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입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값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값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문단을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지문 전체의 체감 난이도를 결정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믿음의 정도'라는 포인트는 잡은 채로 말이죠!

우리는 종종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즈주의자는 이를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네요. 계속해서 '믿음의 정도'라는 포인트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정도'가 '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조건화 원리'라는 개념의 정의를 잡기는 잡는데,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해가 안 되니, 늘 하던 대로 그냥 팩트만 잡고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 보입니다. 아 또 예시예요! 그럼 이 예시를 통해 '조건화 원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겠죠. 여기서 독해 속도가 느려져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잘 하고 있죠?

아무튼 예시를 통해 이해해봅시다. '오늘 비가 온다'는 명제가 참임을 '새롭게' 알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일 비가 온다'는 명제가 참임을 믿는 '정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거네요! 이처럼 새로운 명제의 참, 거짓을 알게 되면 관련된 다른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조건화 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예시를 쭈뼛하게 끌어오고 있죠? 이 예시를 보고도 이해를 못했다면 그건 실력 부족이지만, (그리고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예시가 나왔으니 이해를 해야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잘 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둘 이상일 때도 적용되며, '행위'가 아닌 '믿음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행위'와 '믿음의 정도'가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조건화 원리'라는 정보가 '믿음의 정도'라는 화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랑 똑같죠?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값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주셔야 해요! 역시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를 새롭게 알아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또 예시까지 들어주네요. 핵심은, '웬만하면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야한다'는 거네요.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정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로 '실용적 효율성'을 든다고 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렇게 자꾸 내가 읽고 있는 정보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야 합니다. 여기에 또 예시를 들어주는데, 갑자기 '학교를 옮기는 행위'를 가지고 옵니다. 반수생을 싫어하는 교수님들의 의지가 보이는 문장입니다. 전국의 반수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즉 '실용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므로 웬만하면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거네요. 여기서 만약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 실용적 효율성 떨어짐'이라는 '재진술'을 읽어냈다면 퍼펙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시'를 통해 베이즈주의자의 주장이라는 '원리'를 이해시키는, 그리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특히 2문단에서 '사례-원리 연결'이라는 태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 '조건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럼 '베이즈주의자'의 주장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6.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65%	8%	16%	5%

- ① '실용적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정보의 '역할'을 생각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죠?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라구요? 이건 베이즈주의자의 주장이자, 이 지문의 '화제'를 거스르는 선지네요. 결국 또 화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 ③ '관련성'에 대한 '조건화 원리'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겠죠? 관련 있으면 바꾸고, 없으면, 즉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꾸지 말아야 한다!
- ④ 역시 '조건화 원리'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경우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 믿음의 정도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참, 혹은 거짓이라는 '조건' 하에서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문단의 예시를 통해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우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례와 원리의 연결!' 잊지 맙시다.
- ⑤ 믿음의 '태도'를 더 풍부하게 표현한 것이 '베이즈주의'의 핵심이었죠? 물론 '전통적 인식론자'들 역시 믿음의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릴 수가 없네요.

17.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60%	10%	14%	10%

- '전통적 인식론자'와 '베이즈주의자'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그들의 '주장'으로부터! 주장 체크할 준비하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 ① '인식론자'의 주장은 세 가지 태도(참, 거짓, 둘 다 아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식론자는 믿음의 '정도'를 강조하는 '베이즈주의자'가 될 수 없겠네요.
- ② 인식론자가 강한 '정도'로 믿는다구요? 믿음의 '정도'를 따지는 건 '베이즈주의자'죠? 역시 화제를 관통하는 선지였어요. 정말 쉽게 골라주세요 합니다.
- ③ 1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인식론자'는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참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의 태도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 ④ 베이즈주의자에 따르면 믿음의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처럼 딱 절반인 순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 ⑤ 이게 핵심이죠? 인식론자가 말한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18.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14%	9%	66%	8%

- ①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실용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수생을 저격하는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말이죠!
- ② '조건화 원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의 정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문단 마지막 줄에 있던 이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행위'와 '정도'가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만 하셨다면 기억해낼 수 있겠죠?
- ③ '관련성이 없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 분명히 읽었습니다.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생각했다면 바로 지워낼 수 있어요!
- ④ 조건화 원리는 둘 이상의 명제의 참, 거짓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는 선지네요.
- ⑤ 옹 완전 헛소리죠. 믿음의 정도는 다양하게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로 믿든 간에 관련성이 있으면 믿음의 정도를 바꾸면 되고, 관련성이 없으면 바꾸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19.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	25%	21%	44%

- '독서 활동 기록'에 대한 문제네요.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이렇게 '독서 활동'을 강조하는 문항이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형이 달라져도, 묻는 건 똑같다고 했어요. 일종의 <보기>니까 먼저 정리합시다.

일단 병과 정은 ㉗가 참이라고 믿지만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새롭게' 알게 된 명제들이 있네요. 제가 다음표 치는 부분들에 주목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게 모두 지문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새롭게 알게 된 ㉔와 ㉕가 ㉗와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해야겠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하니 ㉔와 ㉕ 모두 '수첩' 이야기이니 관련성이 높는데, ㉔는 ㉗가 참인 정도를 높이고 ㉕는 낮추네요. 이렇게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보기> 정리를 미리 하지 않으면 선지에서 엄청나게 헛갈리게 되는 문제였어요.

① 관련성이 없으면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만 믿음의 정도를 바꾼다고 했으니까요.

② 우리가 미리 생각한 정보죠? ㉔는 '체육관'에 수첩이 있다는 거니까 ㉗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③ 역시 미리 생각한 정보입니다. ㉕를 알게 된다면 ㉗가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낮아질 거예요. ㉗는 수첩이 체육관에 있다고 했는데, ㉕는 집에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낮아질 지는 모르겠지만, 3번 선지에서는 '약해질 수 있다'고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④ 이 선지를 고르신 분들은 2문단에 나온 '조건화 원리'를 예시와 붙여 이해하지 못한 거죠. 2문단에서 ㉗~㉕를 A, B로 바꾸어 똑같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예시를 통해 '조건화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기억은 날 거예요. 핵심은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였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정보는 지문 내용 그대로 선지에 둔다는 원칙도 그대로 지키고 있네요.

⑤ 믿음의 정도가 바뀌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㉔를 알게 되며 ㉗가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었을 텐데, 만약 병과 정 ㉗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달랐더라도 ㉔를 통해 믿음의 정도가 다르게 변했다면 그들이 참이라는 믿음의 정도가 같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답이 나오네요.

<보기>를 정리하고, 지문의 핵심 정보와 연결 지으며 선지를 판단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태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2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88%	2%	4%	4%

[21~25]

늘 하던 대로, <보기> 먼저 확인할까요?

— <보 기> —

17세기 가사 「월선헌십육경가」는 월선헌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가) 작품은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했는데, '현실적 생활 공간', 즉 '속세'에도 관심을 두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현재 상황을 거의 다 알려주는 <보기>네요.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죠?

— <보 기> —

「어촌기」의 작가는 벗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벗과의 관계와 그의 성품에 대한 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며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나) 작품은 '벗'의 목소리를 이용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드러낸다고 해요. 그럼 '벗'이 좋아하는 건 곧 화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역시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힌트를 얻은 채로 읽어 봅시다.

(가)

동녘 두던 밭과 크나큰 너븐 들허  
 → 동녘 뜨던 밖에 크고 넓은 들에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훈 빗치 되야 있다  
 → 만경 황운이 한 빛이 되어 있다  
 중앙이 거의로다 내노리 흐자스라  
 → 중앙이 거의 다 왔다 내 놀이를 하려한다  
 불근 게 여물고 높은 둑기 술저시니  
 → 붉은 게는 여물었고 누런 닭은 살졌으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냐  
 → 술이 익을지언정 벗이야 없겠느냐  
 전가(田家) 흥미는 날로 기퍼 가노매라  
 → 전가 흥미는 날로 깊어 간다  
 살여홀 긴 몰래에 밤불이 불가시니  
 → 살여홀 긴 모래에 밤불이 밝았으니  
 게 잡는 아히들이 그물을 훑터 잇고  
 → 게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훑어 잇고  
 호두포\* 엔 구비에 아적물이 밀러오니  
 → 호두포 굵이에 아적물이 밀러오니  
 돛단배 애내성(欸乃聲)\*이 고기 파는 당시로드  
 → 돛단배 뱃사공의 노래가 고기 파는 장사같다  
 경(景)도 도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랴  
 → 경치도 좋은데 생활이 괴로울까

(중략)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런들  
 → 어와 이 경치 값이 있거든  
 적막히 다든 문에 내 분으로 드러오랴  
 → 적막히 닫은 문에 내 분수로 들어오랴

사조(私照)\* 업다 호미 거즌말 아니로다  
 → 사사로이 비추는 게 없다 하는게 거짓말이 아니다  
 모재(茅齋)\*에 빗췌 빗치 옥루(玉樓)라 다룰소냐  
 → 모재에 비친 빛이 **옥루(임금님 계신 곳)라 다를까**  
 청준(淸樽)을 바삐 열고 큰 잔의 ㄱ득 브어  
 → 청준을 바삐 열고 큰 잔 가득 부어서  
 죽엽(竹葉) ㄱ는 술를 들빋 조차 거후로니  
 → 죽엽 가는 술을 달빛조차 거후로니  
 표연흥 일흥(逸興)이 저기면 놀리로다  
 → 표연한 **일흥**이 저기면 날겠다  
 이적선(李謫仙) 이려허야 들을 보고 밋치닷다  
 → 이적선이 이려해서 달을 보고 미쳤구나  
 춘하추동에 경물이 아름답고  
 → 춘하추동에 경치가 아름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에 완상이 새로오니  
 → 밤낮아침저녁으로 완상이 새로우니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겨를 업다  
 → **몸이 한가하나 귀 눈은 설 틈이 없다**  
 여생이 언마치리 백발이 날로 기니  
 → 여생이 얼마인가 백발이 날로 길어간다  
 세상 공명은 계륜이나 다룰소냐  
 → 세상 공명은 계륜과 다를 게 없다  
 강호 어조(魚鳥)에 새 멩새 집퍼시니  
 → 강호 어조에 새 멩새가 깃들었으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기엿다  
 → 관직생활에 꿈이 섞이엿다  
 초당연월(草堂煙月)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  
 → 초당연월에 시름 없이 누워 있어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장일취(長日醉)를 원(願)호노라  
 → 촌주강어로 장일취를 원한다  
 이 몸이 이러구름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이 몸이 이리 잘 사는 것도 **역군은이셨다**

-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

딱 이 정도 읽어 주시면 됩니다. 늘 말하지만, 이 해석은 틀릴 수도 있는 ‘실전에서 하는 정도의 해석’입니다. 고전시가는 틀려도 되니, 최대한 현대어처럼 읽자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꼭 외워두어야 할 어휘(옥루, 역군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구요. 물론 실전에서 그렇게 모든 구절을 꼼꼼하게 읽는 건 미친짓입니다. 제가 표시한 부분 위주로, ‘전반적인 상황과 반응’만 잡으면서 빠르게 읽어 주셔야 합니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 속에서 생활, 그리고 임금에 대한 미련 등을 노래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가볍게 읽어주세요!

(나)

어촌(漁村)은 나의 벗 공백공의 자호(自號)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에 급제하고 좋은 벼슬에 올라, 갓끈을 나누끼고 인끈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의 옥새를 주관하니,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하였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다. 증자가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漁父)에 있다.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가 주 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엄자릉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 저어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 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매어 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를 흘러간다.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걸치고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과 옥같이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빛 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하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중략)… **여름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드리운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저 영달에 얽매어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 버리듯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어찌 시체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축년 7월 어느 날.

- 권근, 「어촌기」 -

수필입니다. 역시 대충 읽자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벗’의 이야기가 공화자의 가치관이라고 했으니, ‘어촌’이라는 벗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가볍게 훑으면 됩니다. 뭐 결국 또 자연을 좋아하는 이야기네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둘 다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21.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0%	37%	4%	6%

- ㉠~㉢이라니... 끔찍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겠다는 평가원의 의지가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낯선 것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지들 하나하나 '평가'해봅시다.

① <보기>에서 (가)의 화자는 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화자가 보고 있는 '게 잡는 모습'은 전원에서의 생활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갈매기', '백로'라는 자연물과 함께 하는 삶은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② 돛단배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배를 노 저어 가는 모습에서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요? 물론 '외로운 배'를 통해 '고독'이라는 반응을 허용할 수는 있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의지'를 볼 수 있나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는 대로 맡겨 둔다'는, 자신의 의지를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까지 존재하네요!

③ ㉡ 먼저 봅시다. 모재에 '비친 빛'이라는 자연현상에서 '옥루'라는 임금님이 계신 곳을 떠올리고 있으니 '그리움'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걸 허용하지 못하시겠다면, 고전시가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옥루'가 임금님이 계신 곳인 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임금님은 무조건 그리운 대상이니까요! 이게 고전시가의 세계관입니다. 수능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출제하니, 고전시가는 필수적인 작품들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또한 ㉢은 '배를 타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니,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④⑤ 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사실상 같은 선지로 읽혀야 합니다. '자연' 속에 있다는 상황만으로 모두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속의 '변화'하는 자연은 '춘하추동', '주야조모'를 '근거'로 해서 허용할 수 있겠죠? 시간의 '변화'에 해당하니까요.

22.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11%	6%	7%	73%

① '풍요로운 결실'과 '만경 황운' 모두 '자연'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이런 선지는 해설도 필요 없죠?

② '내노리 혀자스랴'는 놀이를 한다는 것이니 '여유'를 허용할 수 있겠고, '~스랴'가 청유형 표현인 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청유형 표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묻는 느낌'이 있으면 허용 해주시면 됩니다.

③ '게'와 '닭' 같은 고기들은 '풍족함'의 근거로 충분할 것 같고, '붉다', '누르다'(누런 색)은 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니 '색채 이미지'도 맞네요.

④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화자가 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니 '현장감'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⑤ '생리라 괴로오랴'가 설의적인 표현인 건 맞는데, 이게 '고단함'을 드러낸다고요? 현대어로 대충 읽어도 '생리(생활)가 괴로울까'라는 표현이

죠? 이는 괴롭지 않다는 의미를 함축하기에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23.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2%	3%	4%	9%	12%

① '여름', '겨울' 같은 시간 표현에 주목했다면 행복하게 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수필을 대충 읽는 와중에도, 우리가 늘 중요시하는 '상황'과 '반응' 같은 부분은 신경 쓰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② 어...언제요? 결백을 입증할 만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③ '강백공'의 상대라면 화자밖에 없을 텐데, <보기>에서 화자와 '벗', 즉 '강백공'은 가치관이 같다고 했어요. '심리적 거리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④ 질문에 답변한 적 없죠? 그냥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엔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⑤ 무력감이요? 절대 허용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해서 '무력감'을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설마 '자연 앞에서의 무력감'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죠? 무언가 해석을 떠올리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24.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4%	81%	6%	6%

① 네 그렇죠 뭐...

② 선지에서 제시한 '즐거워하며'라는 걸 근거로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③ '아우'로 삼은 건 그냥 어려서일 뿐, 벗이 추구하는 삶이 화자로부터 왔기 때문이 아니죠! 애초에 그렇게 볼 '근거'가 없으면서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라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근거'가 존재하기도 하니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④ '내가 감히'를 근거로 해서 '겸손함'을 허용하는데 또 어떤 생각이 더 필요할까요.

⑤ '기대를 받는데도 사욕이 없는 성격'을 근거로 해서 '벗의 말은 기록할 가치가 있다'. 딱히 틀린 건 아니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25.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5%	4%	11%	5%	15%

① @부터 확인합니다. '강호 어조', 즉 '자연'에서의 맹세가 깊어가는 와중에 '옥당금마' 즉 '관직 생활'의 꿈이 섞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긍정하는데, 그 와중에 관직 생활에 가고픈 마음도 조금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를 근거로 하면 화자는 '강호'라는 '자연'에서의 삶을 긍정하지만, '관직 생활' 같은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⑥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밑줄을 그대로 얹고 있죠?

\*FAQ\*

Q : ③ 부분의 '일반적인' 해석은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희미해져간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선지가 맞는 건가요?

A :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아주 난리가 난 문제였습니다. '셋기였다'에 대한 내용인데, 이를 '성기다'의 옛말로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성기다'는 '관계가 깊지 않고 서먹하다'는 뜻인데, '관직의 꿈이 성기었다'는 건 그 꿈과 관계가 깊지 않다, 즉 '희미해진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문학계에선 이것을 주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가원이 틀린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셋기였다'를 '섞이다'와 같은 말로 보면, 1번 선지처럼 '관직에 미련이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해석 역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결국 핵심은,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해석이 (사실은 모순도 아니죠. 꿈은 희미해져가지만 미련은 남는다는 건 충분히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허용'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의 해석만을 '평가'하는 것.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론 2020학년도 수능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도대체 이게 왜 논란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위의 물음을 하려면 이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월선현십육경'는 제가 강조하던 '필수 고전시가'가 아니니까요. 사실 이 작품은 그 해의 'EBS 연계 작품'이었어요. 그러다보니 미리 공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③ 부분의 해석을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희미해져간다'로 공부했던 이들은 1번 선지를 바로 고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A step에서도 언급했던, 'EBS 연계의 함정'과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도 EBS 연계 교재에 있는 고전시가는 공부하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대전제는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해석 이용'이 아닌, '객관적인 요소에 기반한 허용 가능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 말이지요. 이 함정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문학 문제풀이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답도록 합시다. EBS 공부는 절대로 '메인'이 될 수 없어요!

② 아 물론 2번 선지의 ③에 관한 내용은 허용할 수 없어요!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는 1번 선지에서 논의하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반응'이니까요. 이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⑥가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은' 모습이라는 건 지문의 내용을 위배하구요!

③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한다구요? 애초에 그런 번뇌가 드러나지도 않고, (정치 현실로 갈까하는 번뇌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⑥의 내용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는 건 좀 아니죠? 애초에 '강백공'은 정치 현실에 관심도 없어요. 관직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④ 정치 현실을 지향한다는 건 애매한데, '강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한다는 건 허용하기 힘들죠? 어쨌든 관직에 있으니까요.

⑤ '강호'는 자연이고, '정치 현실'은 속세입니다. 이들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물론 자연 속에서 속세를 그리워할 수는 있고, 그런 경우는 많지만 자연과 속세가 같은 속성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강백공'은 정치 현실에 관심 없어요. 정치 현실에 폐단에 실망할 일도 없겠죠.

[26~29]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편**이라 한다.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이식편에 대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 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합복합체(MHC)**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 개체마다 MHC에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에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 유전적 거리 ↑ → MHC 차이 ↑ → 거부 반응 ↑

'이식'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식편', '동종 이식'이라는 개념부터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 이식'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유입되면 '항상'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정값'이니 확실하게 체크해줘야겠죠? 이렇게 무조건 발생하는 '거부 반응'은 MHC라는 것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데 이를 특별히 '면역적 거부 반응'이라고 하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더 강해진다는 비례/증감 관계도 있네요.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식 시의 거부 반응'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지문은 문제해결형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인식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생각해볼까요? what은 '거부 반응'. why는 'MHC 차이' 정도가 될 겁니다. 이 'MHC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how가 되겠죠. 먼저 '면역 억제제'가 how로 제시되었는데,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지문은 아마 'MHC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식 시의 거부 반응'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지문일 겁니다. 이 해결책을 기다리면서 읽어봅시다! MHC의 차이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우선 인공 심장과 같은 **'전자 기기 인공 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며, 추가 전력 공급 및 정기적 부품 교체 등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고, 아직 인간의 장기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문이 아주 친절합니다. '동종 이식'은 위에서 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 즉 '해결책'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정보예요! 앞 문단의 '면역 억제제' 다음으로 '전자 기기 인공 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일시적 대체', '전력 및 부품의 문제', '기술의 정교화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껴야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how를 말해주는 척 하다가 계속 뭔가 부족한 것들만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사람의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그런데 이종 이식은 동종 이식보다 거부 반응이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하는데, 이로 인해 이종 이식편에 대해서 초급성 거부 반응 및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형질 전환 미니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 있다. 미니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종 이식'입니다. 정의 가볍게 체크해주고, 이 '이종 이식'에도 '거부 반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걸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부 반응', 즉 what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줍니다. 사람이 가진 자연항체가 항원과 반응하며 '초급성 거부 반응',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등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what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how로 '미니돼지'가 있네요. 특히 하기에 why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what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네요. 이것도 일종의 how를 만드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니 알아둡시다. 이 미니돼지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이걸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는 시도가 많다고 합니다. how 하나 찾았네요! 체크하고 있죠?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①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②**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③**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④이후에는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숙주 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애는 특별히 '이종 이식'의 문제로 한정지워주고 있네요. 거부 반응 외에도, 이종 이식에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what이 있다고 합니다. 애는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럼 '레트로바이러스'는 뭡까요? 유전 정보, RNA, 세포 감염 등의 정의를 체크하고, '전사 과정'과 '역전사 과정'이라는, '다른 생명체'와의 '비교 포인트'까지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 과정을 통해 세포를 파괴하는 과정'까지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과정을 체크해주시면 최고겠네요.

물론 이렇게 정신 없이 정보를 처리한 뒤에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이 정보는 또 다른 'what'에 해당하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설명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 및 작동 과정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한 것처럼 그 '역할'까지 생각하며 다시 화제의 흐름 속으로 돌

아와야 한다는 것.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what의 why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why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자,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가 지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며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떼어 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면 이는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니돼지의 DNA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일단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역할을 통해 미리 이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먼저 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 체크해봅시다. 잉 '문제점'이라더니 바이러스로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종의 세포로 주입되면, 즉 '이종 이식'을 하면 세포를 감염시키는 '레트로바이러스'가 되어 버리는 것이네요. 즉, '이종 이식 시 세포 감염'이라는 why가 '레트로바이러스'를 what으로써 기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why, what을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해도 좋아요. 이 지문 자체가 what, why, how를 잡기에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what에 해당하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이 how로 개발중이네요.

이번에도 why를 제거하기보다는 what 자체를 없애버리며 how를 만들고 있네요. 여기에 마지막 문단에선 다른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완벽한 how를 주지는 않아요. why의 제거라는, 그동안 출제하던 명쾌함이 없다는 점에서 뭔가 찝찝함이 남는 지문이었지만, 어쨌든 '문제해결형'임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꽤나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나오는 비교 포인트, 쏟아지는 정보의 역할에 대한 고민 등, 늘 하던 것은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26.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8%	20%	31%	35%

① ‘MHC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가 있었죠?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 차이가 크다고 했어요. 그럼 유전적 거리가 더 먼 이종 간의 MHC 차이가 더 크겠네요.

② 면역 세포의 작용으로 발현되는 ‘MHC의 차이’가 why가 되어 생기는 what은? ‘면역적 거부 반응!’

③ 이종 이식을 하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세포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what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요.

④ 조금 어려운 선지입니다. 포유동물의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를 찾아보니, 딱히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때 바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정보의 ‘역할’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what을 꼬집어온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찾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무튼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선지에서 묻는 ‘포유류’와 연결지어 보니,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는 정보가 보입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든’ 포유류에 존재하는데, 애는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은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존재하는 모든 포유류는 레트로바이러스에 한번쯤 감염된 조상이 있겠네요. 이걸 견딘 덕에 우리 몸에 있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어려운 선지였지만 결국 늘 하던 대로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했다면 생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며 지문을 읽는 태도도 갖춰져 있어야 하구요! 모든 문제풀이는 결국 ‘잘 읽은 지문’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 잊지 맙시다.

⑤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효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바로 과정 체크한 부분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를 한 다음에 세포를 감염시켰으니까요. 확인해볼까요? ‘역전사 과정’은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역전사 과정’을 위한 ‘역전사 효소’에 대한 정보는 어디있나요?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를 조금만 뒤져보니,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라는 말이 보입니다. 아 역전사 효소는 레트로바이러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숙주 세포’가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전사 과정’을 거치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역전사 과정’을 거친다는 비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생명체’에 해당하는 ‘숙주 세포’는 역전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 역전사 효소가 없겠네요. 엄청 쪼잔한 부분에서 답을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또 ‘비교 포인트’ 파악,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 등 기본적인 태도로부터 시작하는 문제였네요.

27.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4%	12%	12%	25%	7%

- ‘이상적인 이식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문 확인 잘 하고 있죠? ‘이상적인 이식편’이 되려면, 이 지문에 나온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았겠네요. 결국 ‘이상적인 이식편’은 how에 해당하니 what이나 why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할 테니까요.

① 정기 교체? 이걸 두 번째로 제시된 how였던 ‘전자 기기 인공 장기’의 ‘문제점’이었죠. 이런 문제점을 용이하게 해야한다니, 말도 안 되는 선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집중했으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② 장기의 크기가 비슷하다? 이걸 how의 일종이었던 ‘미니돼지’가 가진 장점이었죠. how가 가진 장점이라면 당연히 ‘이상적인 이식편’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죠.

③ 유전적 거리로부터 발생하는 ‘거부 반응’을 극복하는 것. 처음으로 제시한 what이었습니다.

④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것 역시 how였던 ‘미니돼지’의 특징이었어요. 미니돼지라는 정보가 how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었을 겁니다.

⑤ 첫 번째 what에 대한 내용이네요.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위에서 계속 언급되는 ‘미니돼지’가 그 시도의 일부로 나온 것이었죠.

28.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0%	61%	15%	8%

- 이번에도 특이하게 ‘신문 기사’를 주는 형태네요. ‘베이즈주의’ 지문의 19번 문제와 비슷하게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매체 교육’을 반영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역시 다른 건 없어요. <보기>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봅시다.

㉞의 핵심은 ‘수혜자 자신의 줄기 세포를 이용한 것’입니다. 수혜자 자신의 것을 이용한다면 동종 이식의 문제점도, 이종 이식의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는 완벽한 이식이 가능하겠네요. 사실상 최고의 how였습니다. 이 생각하고 선지판단해봅시다.

① ㉞는 전자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세포 기반’의 이식편이므로,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② 선지에서 묻는 ‘면역 억제제’는 ‘동종 이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㉞는 동종 이식의 문제점도 가지지 않으니 면역 억제제를 쓸 필요도 없겠네요.

③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요? 이걸 ‘이종 이식’의 문제점이었죠? 애초에 동종 이식편에서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종 이식편과 달리’는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물론 ㉞는 ‘이종 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맞는 말이겠어요.

④ 역시 ㉞는 이종 이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종 이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미니돼지와 같은 '유전자 조작'도 필요 없을 겁니다.

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애초에 자기 유전자를 사용하기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29.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1%	9%	11%	38%	11%

- 26번 문제와 더불어 꼼직한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우리는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외우지는 못했으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일단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자신이 속한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26번 문제의 4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는 것도 체크했었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정의를 보면 선지에서 묻는 것처럼 생명체의 'DNA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럼 핵심은 '레트로바이러스'가 자신이 속한 생명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느냐는 거네요. 또 자연스럽게 과정을 체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과정을 따라가보니,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거치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든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세포의 DNA가 아닌 '특정' 세포의 DNA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라는 지시 대명사의 의미를 파악해야 엄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아무튼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1번 선지가 정답이네요.

꽤 어려운 선지입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는 시험장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선지에서 '모든' 세포의 DNA에 존재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이 당연한 생각이 정답률 31%의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거예요.

② 이번엔 '유전 정보'를 'DNA'에 담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1번 선지를 판단하며 '레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과정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보니, 자신의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RNA'를 'DNA'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에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선지는 바로 틀린 내용이 되네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역시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이종 이식을 하면 '레트로바이러스'처럼 세포를 감염시킨다고 했으니, 마찬가지로 DNA 속에 유전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③ 이번에는 '면역 반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은 '거부 반응'이라는 what을 일으키는 why인 'MHC 차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 반응'은 몸 속에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유입되면 발생하는 '면역 반응'에 의해 '항상'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즉,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한 생명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네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고, 이는 '항상' 면역 반응 및 거부 반응을 일으킬 테니까요.

물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 이종 이식을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에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레트로바이러스'는 항상 면역 반응을 일으키니 틀린 선지입니다. '항상'이라는 고정값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지에서 묻는 '면역 반응'을 통해 그 인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지였어요.

사실 이런 선지를 하나하나 엄밀하게 해결하기는 아주 힘들 거예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말이죠. M step 초반부에도 언급했지만, 이 선지가 엄밀하게 지워지지 않아도 1번 선지에서 답을 찾았으니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선지 해설 못해도 1번만 OMR 카드에 마킹하면 대학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요.

④ 이번에는 자신이 속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일단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이 속한 생명체의 DNA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그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면 '레트로바이러스'는 그 과정을 살펴보니 '자신의 유전 정보'가 있는 RNA를 DNA로 바꿀 뿐, 자신이 들어가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알지는 못하네요. '레트로바이러스'를 물을 때마다 과정 체크를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태도겠죠?

\*FAQ\*

Q : DNA에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나요?

A : 일단 늘 그렇듯이 '어휘력'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A step '필연적 문제풀이'의 [33~34] '중력, 부력, 항력' 지문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고1 공통 사회, 과학 수준의 어휘는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DNA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정의하지는 못해도, '유전 정보가 있는 곳'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와 '레트로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다른 생명체의 '전사 과정'은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같은 해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개체성' 지문 (A step '필연적 문제풀이' [27~32])에서도 제시되었어요. 기출 문제에서 모르는 어휘를 자주 체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⑤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체크했던 정보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레트로바이러스'와는 달리 이종 이식을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아요.

5개의 선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비주얼은 별거 아니지만 막상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긴 문제가 계속해서 킬러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2019학년도 수능의 '우주론' 관련 <보기> 문제(A step '필연적 문제풀이 9번 문제)가 지나치게 긴 <보기>와 선지 등의 '비주얼 쇼크'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질타는 피하면서도, 변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런 '비주얼은 만만하게, 사고 과정은 빡세게'의 기초가 이어질 겁니다! 모든 문제가 '선지에서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것만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역시 <보기>부터 봅시다!

〈보 기〉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사실 굳이 먼저 안 읽어도 되는 <보기>이기는 합니다. 딱히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지문이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가봅시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 원, 다섯 개에 십 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 쬐는 것이었다. 그 캐러멜 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도 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중간나래! 암생이처럼 기러케 쫓라닥질을 허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 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 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 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췌 채 서 있었다.

— 넌름 털어 넣지 못하겠니, 으잉?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더 얹은 다음에야 한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워낙 짧은 밀천으로 가게를 꾸려 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걸음을 쳐야 했고, 막 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줄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하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행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 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구멍가게’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그리고 그 이유 (수입원, 생존 이유) 체크하면서 가봅시다. 그러다 ‘나’가 등장하여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 제가

밑줄 친 다양한 심리들과 그 근거는 체크하고 계시죠? 이 인물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심리를 보이는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문 자체는 아주 쉬워요.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 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덜 온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 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때밀어 물건을 받아 온 수도상회의 **흑부리 영감**한테 내려 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 뭐 하러 왔네?

가게 안에 복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썸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판알을 고르는 데 바쁜 흑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 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 사탕만 한 흑을 어루만지며 듣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앞에서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 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거래를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흑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 주듯이 거래를 더 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같은 함경도 동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흑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열 병 안쪽에 새우깡 열 봉지, 껌 대여섯 개, 빵 예닐곱 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어 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 쌓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열여덟 병의 소주를 넘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아! 아버지…….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이번에도 한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이 부분의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심리 및 행위의 근거들’ (제가 <> 표시한 부분들이예요.) 그리고 ‘흑부리 영감’의 외양 묘사 등을 체크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아버지’와 안타까워하는 ‘나’라는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30.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0%	2%	4%	2%	2%

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래를 끊는다는 ‘위협적인 경고’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이런 문제는 단순히 맞히는 것보다도 ‘빠르게’ 맞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맞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하얗게 질린’ 심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근거’를 통해 내용을 이해했다면, 역시 바로 지울 수 있는 선지네요.

③ 반대죠?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④⑤ 역시 모두 ‘내용 이해’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쉽게 쉽게 지워내고 있죠?

31.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4%	3%	8%	83%

①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각별하게 여긴다는 ‘심리의 근거’를 생각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죠?

② ‘아버지’는 ‘나’에게 사과를 하기 보다는 캐러멜을 지워주는 방식으로 ‘머쓱함’이라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③④ 모두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 ‘심리의 근거’를 토대로 내용을 이해했다면 말이죠!

⑤ 흑부리 영감이 ‘거래를 끊지 않는’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그냥 수용하고 돌아갔으니! 이걸 ‘유대감’이라고 본다는 건 아예 이해를 못한거죠. ‘함경도 동향’에 낚였을 리는 없다고 믿을 게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32.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7%	18%	4%	63%

① 아버지의 ‘구멍가게’에 대한 내면을 서술하고 있네요. <보기>에서 이러한 ‘첫째 방식’에서는 ‘서술자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② 네 역시 쉽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행위만 묘사하고 있으니 <보기>에서 말하는 ‘둘째 방식’에 해당하겠고, 이 경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건, 즉 내용을 이해하는 건 우리 같은 독자의 몫이겠죠.

③ ‘하얗게 질렸다’는, ‘나’의 입장에서 본 아버지의 ‘외양’이 나오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죠. 심리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니 독자 스스로 해석해야 할 겁니다!

④ ‘흑부리 영감’의 ‘외양’과 ‘행위’를 묘사하는데, 유년 ‘나’의 시선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셋째 방식’에 해당하네요. <보기>에서 이 경우에는 장면면을 직접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⑤ 유년 ‘나’의 시선에서 묘사하는 건 맞는데, ‘나’의 심리가 함께 나온다구요? @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의 심리를 찾을 수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였네요.

[33~36]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가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데도.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곤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혜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 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사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운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머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먼저 늘 그렇듯이 [줄거리]부터 확인합니다. ‘유세기’가 ‘백공네’와 결혼했다고 생각한 ‘선생’이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네요. 일단 ‘유세기’와 ‘선생’은 가족 관계일 것이고, ‘백공’네 가족과는 결혼할 뻔 했다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보기>에서 말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꼭 잡은 채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달리면 어려울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니, ‘백공’이 그 갈등을 중재하려는 것 같습니다. ‘선생 형제’한테 가서 ‘흔쾌히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해를 풀어야 하니, 웃는 낯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보아하니 결혼 이야기는 ‘백공’이 마음대로 한 것이었네요. 처음엔 ‘백공’을 여자라고 생각했더라도, 여기서 ‘백공’이 유세기와 혼사를 맺으려는 집안의 아버지임을 알아내야 합니다. 인물관계 잡기!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백공의 해명을 들은 ‘선생’과 ‘승상’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오해가 풀렸으니까! 나아가 원래 백공이 대화를 건 대상은 ‘선생 형제’였는데 기뻐하는 건 ‘선생, 승상’임을 토대로 ‘승상’ 역시 ‘유세기’의 가족임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인물관계를 잡는 게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이처럼 새로 나온 인물(승상)이 정말로 뉴페이스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어떤 인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지를 토대로 관계를 만들어주셔야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난 뒤, ‘백공’의 딸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쿨하네요. 이제 ‘선생’은 ‘한림’을 불러 훈계를 하고, 이 ‘한림’은 그 말을 잘 들었대요. ‘소 소저’와 잘 살고 그러기까지하고 말이죠. 앵 그런데 ‘한림’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애는 정말 뉴페이스일까요? 아니죠! ‘선생’이 이 맥락에서 훈계를 할 만한 대상은 ‘유세기’뿐일 테니, ‘한림’은 곧 ‘유세기’를 의미하겠습니다. 아 어려워요.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 관계를 잡지 못하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지문은 다행히 문제가 쉽게 나왔지만, 만약 조금만 더 치사하게 물어봤다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저처럼 인물관계를 잡으며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승상’의 아들 ‘세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갑자기 ‘세형’에 대해서 왜 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이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유추해보니, 아마 좀 호탕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인물을 설명해준 이유가 있겠죠?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 봅시다.

화설, 장 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지, 어머니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

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복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쑥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지, 어머니와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웁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흠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장 씨’라는 인물이 ‘이화정’이라는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과 슬픔’이라는 심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겠죠? 보아하니 뭐 ‘공주’라는 인물한테 천대받고 그래서 슬프고 그렇다네요. 자세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장 씨가 불만이 가득하다는 내용만 잡고 가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형’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써먹으려고 세형의 외양 묘사를 길게 해 준 것이었네요. 세형이 장 씨를 위로하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부마’가 ‘세형’을 의미한다는 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계속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인지를 생각해주시어야 해요! 장 씨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만 잡아주시면 충분해요! (중략) 이전에 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네요. 잘 하고 있죠?

33.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7%	62%	11%	8%

① 백공이 거짓말로 혼사를 꾸며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백공'이 '선생 형제'에게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해요!

② '한림'이 '유세기'인 것을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백공'이 거짓말을 해서 '한림', 즉 '유세기'가 쫓겨날 뻔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올 때마다, 정말로 뉴페이스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③ 이번엔 '선생'과 '승상'의 관계를 체크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선생과 승상은 '백공'의 말을 듣고 동시에 안심하고 있었으니, 둘의 '갈등'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선생 형제'가 '선생+승상'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승상'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보고 이게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인물관계를 체크하는 건 기본이에요.

④ 이 일 때문에 '한림', 즉 '유세기'가 쫓겨날 뻔 했고, 나중에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한 소리 들었죠? 역시 '인물관계'를 통한 내용 이해를 묻고 있네요.

⑤ 1번 선지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를 위해 거짓말을 쳤다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정도 지문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원이 요구하는 수준이니까요.

3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9%	77%	6%

① 모두 과거 이야기가 있죠? [A]와 [B]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장 씨'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부분들이니까요.

② 비유적 진술 찾아봅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찾아야 해요. 지문 읽으면서부터 비유적 진술을 체크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니까요. [A]에는 '하늘과 땅 같도다', [B]에는 '하줄이 머릿수나 ~ 같게 만드옵니다.' 등에서 찾을 수 있네요.

③ '원망'을 바로 찾기는 힘드니 '의문형 표현'부터 찾아봅시다. [A] 앞 부분에 '~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에서 원망을 읽어낼 수 있겠네요. 하지만 [B]에서는 '~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 오리카?'에 의문형 표현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원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죠? 인물의 발화가 어떤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행동의 '이유'를 생각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④ 우월한 지위를 드러낸다고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존댓말하면서 애절하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장 씨'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을 드러냈다는 '근거'가 없으니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⑤ [A]에서는 '낭군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라거나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고 있고, [B]는 아예 대부분이 과거의 일들이죠?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35.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83%	7%	4%

- '이화정'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이화정은 '장 씨'가 자신의 한탄을 시작하는 공간이었고, 두 번째 이화정은 '세형'이 '장 씨'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게 공냥대는 공간이었죠. 쉽죠?

① 학문 연마... 덕행... 지문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죠?

② '불신', '조소' 같은 것도 역시 지문을 이해했다면 고를 수가 없네요.

③ 우리가 찾아둔 거죠? 바로 답이네요.

④ 계책을 꾸민 적도 없고, 두 번째 '이화정'에서는 외로움을 해소하면 해소했지 인내하지는 않았겠죠?

⑤ 두 번째 '이화정'이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내용이 아니죠?

36.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8%	58%	11%	17%

① '유세기'와 '유세형'이 '승상'이라는 매개로 연결되고 있으니 둘이 한 가문인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모두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연결된다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가족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이들이 '유세기'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으니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 그리고, '유세형'이 '장 씨'의 말을 듣고 '공주'를 멀리 하는 것 등은 허용할 수 있는데, 이게 '가법'과 인물 성격 간의 대립'이라구요? 애초에 인물의 '성격'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도 않았고, '유세기'가 '가법'을 지키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니에요! '유세기'는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날 뻔 했을 뿐이죠. 내용을 이해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④ '백공', '천자'는 모두 혼인 당사자가 아니죠?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백공의 딸'이 다른 곳에 시집감으로써 해소되었고, '선생'의 훈계를 받고 '소 소저'와 행복하게 지냈다고 했으니 이야기의 마무리까지 허용할 수 있겠네요.

인물관계를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지 생각한다.'라는 기본적인 인물관계 체크의 태도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먼저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의와 함께, '규범'이라는 공통점과 '명시적'이라는 '차이점' 인식하고 계시죠? 이렇게 못해도 최소한 이 둘이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주셔야 합니다! 늘 하던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 지키고 있는 '규범'과는 다르게,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사항'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이 비교 포인트도 잡아주셔야 해요!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비교되는 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결정 사항' 중 BIS 비율 규제 같은 것은 '비회원', 즉 '굳이 지킬 필요 없는 나라'에서도 준수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혀야 해요. '비회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지, 그 역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도 '불친절한 서술'이 쓰였네요.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이 지문의 핵심 정보일 것 같은데, 애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그렇죠. 비회원의 국가처럼 굳이 지킬 필요 없는 곳에서도 규범이 아닌 결정사항을 '규범처럼' 지킨다는 걸 '일종의 규범적 성격'으로 표현한 거죠. 이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범적 성격'에 대해 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와 '신뢰'를 비교하면서 말이죠! '제재'와 '신뢰'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조약&관습법'을 '결정 사항'과 비교했고, 후자에 주목하고 있으니 '조약&관습법'은 '제재'에, '결정 사항'은 '신뢰'에 붙여주셔야겠네요. 일종의 '재진술'을 활용하여 불친절함을 뚫은 것입니다.

저처럼 읽었다면, 이 지문은 '결정 사항'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속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비교 포인트 체크, 정보의 역할 생각, 화제 생각까지 완벽하게 했으니 본격적으로 지문을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먼저 앞에서 말했던 '결정 사항'의 일종인 'BIS 비율'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정의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를 정한 '바젤위원회'에서 이 비율이 8%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냥 글자 그대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가 봐도 문제로 낼 것만 같은 식이 하나 나옵니다. 역시 이해하거나 외울 필요 없어요. 앞에 나왔던 '8% 이상'이라는 정보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수식은 일종의 비례/증감 관계이니 메모했어야 하는데, 친절하게도 평가원이 메모를 해준 모습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인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치'와 같은 개념들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죠? '위험가중치'의 경우 '국채'와 '회사채'로 나뉘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도요. 일종의 '비교 포인트'에 해당하니 당연히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겁니다.

그러다 '이후' 무언가 요구가 있어서, '위험가중자산'의 정의가 변했다고 해요. '변화!' 우리가 사랑하는 출제 포인트죠? 역시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으로 나눈다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변하는지'에 주목하는 것! 기본 중의 기본이죠?

또한 위에서 나는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은 또 다른 비교 포인트를 가집니다.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그렇지 못하구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이 1996년의 '바젤 I 협약'이라고 합니다. '시대'와 '정의'를 확실하게 체크하고 계시죠? 정보량이 엄청난 문단이었지만, 여기에 당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는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BIS 비율'에 대한 내용과 '바젤 I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들은 '바젤위원회의 결정 사항',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구속력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그 정보를 화제의 흐름 속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엄청나게 연습했던 내용이니, 여기서 '신뢰'를 끌고 올 수 있어야 해요. 잘 하고 있죠?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 표준 모형 : 신용도 ↑ → 위험 가중치 ↓

그런데 1996년에서 2004년으로 '시간'이 흘렀고, '바젤 I 협약'에서 '바젤 II 협약'으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순 서술' 지문이죠? 무엇이 변하는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바젤 II 협약'에서는 먼저 위험가중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나가요? 몰라요... 그냥 저렇게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 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변화' 생각하면서, 또 비교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먼저 '표준 모형'입니다.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 범위가 다르네요. '바젤 I 협약'에서는 국채는 0%, 회사채는 100%를 일괄적으로 부여했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생각까지 해주시면 베리굿이고, (여기에 바젤 I 협약의 위험 가중치가 '고정값'이라는 것까지 인식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냥 '표준 모형'의 정의만 체크하셔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시'를 들어줍니다! 아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야겠어요. 예시를 보니, '실제 보유량'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위험가중자산'이 나오네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위험 가중치를 주고, 이를 실제 보유량에 곱한다는 것! 이 원리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평가원이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다들 잘 하고 있죠?

다음은 '내부 모형'이에요. 애는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이 하고 싶은 걸 감독 기관 승인하에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감독 기관'은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체크한 이 모든 정보들이 모두 '바젤 I 협약'에서 변화한 '바젤 II 협약'에 대한 내용이며, 이렇게 변화하는 바젤 협약을 통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대해 설명해줄 것이라는 생각. 이를 통해 '화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건 '비교 포인트', '비례/증감 관계', '사례-원리 연결' 등 늘 하던 것들이니 쉽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걸 억지로 의식해야만 떠올릴 수 있겠지만, 많이 연습하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체크하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합시다.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는 '바젤 III 협약'입니다. 또 바뀌는 것이 있겠죠?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라는 것이 삭제되었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이 6% 이상이 되도록 '변화'했다고 합니다. 역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젤 협약'의 변천사를 읽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두 번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해두셨으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신뢰를 통한 구속력'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걸까요! 설마 바젤 III에서 더 가는 건 아니겠죠...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휴 다행스럽게도 그건 아니었네요. 이러한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입 전부터 이걸 잘 지켰다고 해요. 왜? 국제 금융 시장에 우리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즉 '신뢰'가 있다는 징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 결국 이 글의 진짜 화제였던 이야기인 '신뢰를 통한 구속력'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정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I step '과정과 비례/증감 관계' [39~44] '오버슈팅' 관련 지문과 아주 유사하죠? 하고 싶은 이야기 처음에 풀어주고, 엄청난 정보량으로 혼란시킨 다음, 원래 화제로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간 정보량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여러분은 잘 헤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말이지!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감독 기준을 정하고, 바젤 기준을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불친절한 서술이 쓰였는데, 생각해봅시다. '100개가 넘는 국가'는 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화제인 '신뢰를 통한 구속력'을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워 문단에서 28개국만 가입했다고 했고 심지어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이걸 100개 넘는 국가가 지킨다니! 사실 '100개 국가' 이야기가 나오는 문장 앞에 '그런데도'와 같은 연결사가 있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평가원은 이런 연결사 하나하나까지 억지로 빼면서 불친절하게 서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죠? 화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100개 국가'라는 정보의 역할을 생각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신뢰'를 통해 형성되는 구속력을 '말랑말랑한 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조약, 국제 관습법' 같은 '제재'를 통해 형성되는 구속력은 '딱딱한 법'이라고 한대네요. 첫 문단에 나온 '신뢰, 제재'를 마지막 문단의 '말랑말랑, 딱딱'과 연결시켜 읽을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화제'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화제'에 대한 인식, 시간순 서술에서 '변화 양상'에 대한 인식, 정보의 역할 통한 불친절한 서술의 연결 고리 만들기! 역시 늘 하던 태도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문이었습니다. 정보량은 좀 많지만, 충분히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37.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3%	10%	8%	9%	10%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바젤 협약)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 나아가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신뢰를 통한 구속력)까지. 완벽한 정답 선지입니다. 늘 말하지만, 내용 전개 방식 문제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문을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자예요!

- ② 바젤 협약이라는 기준이 제정된 원인은 나왔는데, 이런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한 적은 없죠? 화제를 찾아야 합니다!
- ③ 규범의 필요성이요...?? 너무 헛소리네요.
- ④ 역시 바젤 협약의 장단점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 ⑤ '규범 설정 주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화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38.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0%	57%	17%	11%

- ①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함께 '제재'를 기반으로 하는, '딱딱한 법'이었어요. 권리와 의무 부과는 당연하죠. 이렇게 풀지 않아도, '조약'의 정의를 찾아 해결해서도 좋습니다.
- ② 바젤 협약이 바뀌는 것. 실재없이 체크한 정보죠?
- ③ 마지막 문단에서 '제재'를 '딱딱한 법'과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선지네요. 제가 마지막 문단에 썼던 말들이 이 선지를 보고 떠올린 것이 아니라, 처음 지문을 읽을 때부터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걸 잡아주세요. '화제'와 '비교 포인트'에 대한 인식! 이거면 됩니다.

④ '제재'를 통한 구속력에 대한 설명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불이익이 없는데도 '신뢰' 때문에 알아서 지키는 '말랑말랑한 법'에 대한 설명이 이 지문의 화제예요.

⑤ 바젤 기준을 알아서 지키는 건, '신뢰'를 통한 구속력에 의한 것이었죠? 역시 화제를 묻는 선지네요.

39.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17%	14%	47%	12%

① '바젤 I 협약'에서 '신용도'와 'BIS 비율' 사이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신용도'라는 말을 보면 '위험 가중치'가 떠오르죠? 비록 '바젤 I 협약'에서 나온 정보는 아니었지만, 신용도와 위험 가중치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젤 I 협약'에서는 '위험 가중치'가 항상 국채 0%, 회사채 100%로 '고정된 값'이었죠? 그럼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위험 가중치는 일정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구해지는 '위험 가중자산'도 일정할 테니 BIS 비율 역시 일정하겠죠. 분자인 '자기자본'이 변한다는 말은 없으니까요. '고정값'에 대한 인식과 '신용도'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선지였습니다.

② 이번엔 '바젤 II 협약'으로 옵니다. 여기서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변화 양상'을 체크해보니, 마지막에 나온 '감독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그럼 감독 기관이 자기자본 최저 비율의 규제 비율 초과를 요청한 은행은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더 높은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을 가지겠네요. 동일하다는 것은 틀린 말이겠습니다. 각 협약의 '변화 양상'을 체크하고, 선지에서 묻는 걸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③ 이번에도 '바젤 II 협약'입니다. 여기서의 '국채'와 '회사채'의 'BIS 비율'을 묻고 있네요. 역시 이와 관련된 '변화 양상'을 보니,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먼저 표준 모형부터 봅시다. 국채는 0%~150%, 회사채는 20%~1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한다고 해요. 만약 이 '위험 가중치'가 높아진다면, '위험가중자산'이 많아지고, 이는 BIS 비율의 분모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BIS 비율을 낮추겠죠? 그럼 '위험 가중치 ↑ → BIS 비율 ↓'라는 비례/증감 관계를 만들어두고 갑시다. 선지에서 '국채&회사채'의 'BIS 비율'을 묻고 있는데, '국채&회사채'는 '위험 가중치'라는 비교 포인트를 가지니, 이 '위험 가중치'와 'BIS 비율' 사이의 관계를 잡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표준 모형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매각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알 수 없죠! 만약 보유하고 있던 국채의 위험 가중치가 0%~19%였다면 반드시 높아지겠지만, 20% 이상이었다면 같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겠죠. 50%짜리 국채를 팔고 100%짜리 회사채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50%짜리 국채를 팔고 30%짜리 회사채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위험 가중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BIS 비율이 어떻게 될 지도 알 수 없네요.

혹은 '내부 모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초에 '위험 가중치'는 은행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죠? 그럼 또 위험 가중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BIS 비율이 항상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어떻게 보든 상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험장에서는 이 둘을 모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표준 모형이든 내부 모형이든 하나만 잡고, '항상 오르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내면 되는 것이었죠.

핵심은 선지에서 묻는 '국채&회사채와 BIS 비율' 사이의 관계로부터 '위험 가중치와 BIS 비율'을 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바젤 II 협약'의 변화 양상에서 '국채'와 '회사채'의 비교 포인트를 잡았어야죠!

④ 이번에도 '바젤 II 협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젤 II 협약'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만 은행이 선택할 수 있던 것이 '내부 모형'에서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3번 선지를 판단하면서도 알게 된 정보였죠? 답은 '변화 양상' 속에서 굉장히 쉽게 나왔네요. 1~3번 선지를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도, 배운 대로 4번 선지만큼 OMR에 마킹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⑤ 이번에는 '바젤 III 협약'입니다. 여기서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의 비율'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바젤 III 협약'의 핵심 변화는 '자기자본 비율'이 6%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보완자본'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보완자본이 3%가 되어도 기본자본이 5%라면 '바젤 III 협약'의 보완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테니까요.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3번 선지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모든 선지가 결국 '변화 양상'이라는, 우리가 늘 체크하던 부분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체크해주셔야 해요.

#### 40.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22%	20%	26%	24%

- 2020학년도 수능의 오답률 1위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보기>부터 정리하고 가 봅시다. 다른 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보인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이라는 말이 확 들어오네요. 국채의 위험 가중치는 0%~150%,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20%~150%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로 반영되었네요.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표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뭔가 계산하고 싶지 않나요? 각 표가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즉 'BIS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니 미리 구해놓고 갑시다. 분자가 110억, 분모가 1000억입니다. BIS 비율은 11%로 규제 비율을 초과하네요. 여기까지 체크하고 가봅시다.

① 미리 찾아둔 정보죠? 미리 찾지 못했더라도, 선지에서 'BIS 비율'을 묻고 있으니 표를 각각 분자, 분모로 활용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②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와 'BIS 비율'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보기> 정리를 통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50%로 반영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위험 가중치를 20%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위험 가중치가 낮아진 상태'로부터 BIS 비율을 구하라는 선지가 되는 것이네요.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면 그로부터 구하는 '위험가중자산', 즉 BIS 비율의 '분모'도 작아질 것이고, 이에 따르면 결국 BIS 비율은 높아지겠습

니다. 맞는 선지네요. 역시 선지에서 묻는 것을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전형적인 '필연적 문제풀이'에 대한 선지였습니다.

#### \*뒷북해설\*

물론 우리가 배웠던 '문제의 연계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 가중치'와 'BIS 비율' 사이의 관계, 39번 문제의 3번 선지 판단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죠? 이걸 그대로 가져오셨으면 정말 훌륭합니다.

③ '실제 규모'와 '위험 가중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지에서 '실제 규모'를 묻고 있으니 이걸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런데 '실제 규모'? 우리 예시를 통해 집요하게 이해했던 '표준 모형'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심지어 <보기> 정리를 통해 여기서 '표준 모형'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실제 규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험 가중치가 50%임을 아는 '회사채'부터 구해봅시다. '실제 규모'에 '위험 가중치'를 곱하면 '위험가중자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금액에 50%를 곱했더니, 300억이 나왔다는 뜻이겠네요. 우리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죠? 그 어떤 금액, 즉 '실제 규모'는 600억이겠네요. 회사채의 실제 규모는 600억입니다!

그런데 선지에선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 즉 600억보다 컸다고 합니다. 그럼 큰 수 임의로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 결정되지 않은 수는 대충 계산하기 편한 10, 100 같은 걸 쓰자고 했죠? 600억보다 커야하니, 1000억이라고 해볼까요? 국채의 '실제 규모'가 1000억일 때 '위험가중자산'이 300억이 나오려면 '위험 가중치'는? 30%네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50%보다 낮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000억이 아닌 어떤 수를 넣어도, 심지어 그냥 국채를  $x$ (단,  $x > 600$ 억)으로 놓고 해결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핵심은 선지에서 묻는 '실제 규모'를 통해 '표준 모형'을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예시를 통해 이해했던 '위험가중자산 구하기'의 과정을 그대로 해내는 것. A step에서, 아니 교재 전체에서 주구장창 연습했던 '필연적 문제풀이'의 전형이네요. 어렵지만, 이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보세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자 이번엔 또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위험 가중치'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바젤 I 협약'에서는 이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의 경우 100%로 '고정된 값'이었죠? 고정값을 또 이용하고 있네요! 그럼 회사채의 위험가중자산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또 '실제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채의 실제 규모가 600억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가져오면,  $600억 \times 100\%$ 를 통해 위험가중자산도 600억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 앞 선지를 이용하는 '문제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물어보는, 참으로 아름다운 문제예요 그죠?

⑤ 이번엔 '보완자본'의 증액을 통해 '바젤 III 협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젤 III 협약'의 보완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이 6%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완자본을 늘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심지어 39번 문제의 5번 선지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었어요. 2~4번 선지의 무게감에 비해 정답 선지는 조금 허무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문의 핵심인 '변화 양상'을 묻고 있다는 것. 이것만은 기억할 수 있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2~4번을 못 지우더라도 5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말이에요.

41.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3%	15%	30%	34%

- '말랑말랑한 법'이라는, 이 지문의 '화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지키려 한다! 이 포인트를 잡은 채로 풀어봅시다.

① 바젤위원회가 기준을 개정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걸 지키는 경우를 찾아야해요!

②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건 안 돼요!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③ 지키지 않는다? 지켜야 한다니깐요!! 선지에서 묻는 내용의 포인트만 잡으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④ 이 선지는 정말 낡일만 하기는 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걸 지킨다고 하니깐요! 그런데 핵심은, 바젤위원회 '회원'은 어차피 준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알아서 지키다'는 '말랑말랑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데 알아서 지키는 경우를 찾아야 해요! 이렇게 짜잔한 내용까지 답의 근거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 즉 지킬 필요가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 즉 알아서 지키는 모습. 완벽한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입니다. 포인트를 미리 생각했다면, 그리고 지문에서 말한 우리나라의 예시를 통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2.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3%	47%	24%	12%

- 기존에 이 자리를 차지하던 어휘 문제가 사라지고, 말 그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휘 문제의 경우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도 답을 고를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평가원이 잔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밑줄 문제네요. 어딜 봐야하죠? '밑줄 근처'라는 대답이 나왔다면, 축하합니다. 정말 공부 잘 하셨어요. 그럼 근처를 보면서 그 맥락을 따져 봅시다.

① 무엇을 고려하는 것이죠? 근처를 봤더니,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을 구하는, 즉 '산출하는' 방법이 변한 상황이에요.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반영'해서 말이죠!

② 애는 근처가 아닌, 2문단을 봐야겠네요. 왜? 밑줄이 '규제 비율'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BIS 비율의 '규제 비율'은 2문단에서 설명했으니까요. 8%인 건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③ 역시 근처를 봅시다. 국제 금융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에서 더 심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예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젤위원회 가입'은 국제 금융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 ㉠와 바꿔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네요. 별거 없어요. 무언가 달라져도, 늘 하던 대로!

④ 애는 지문의 화제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고른 24%의 학생들은 아예 찍었거나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신뢰'에 바탕을 둔 구속력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권고적 효력'에 대응하겠죠.

⑤ 역시 마지막 문단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첫 문단에 나온 '신뢰, 제재'를 마지막 문단의 '말랑말랑, 딱딱'과 연결시켜 읽었죠? 딱딱하게 응고된다는 건 '제재'를 통해야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2020학년도 수능 비문학 문제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3지문 모두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평가원이 계속해서 '핵킬러 문제'는 없애고 평균적인 문항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지문이 '할 만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2020학년도 수능을 한 마디로 총평하자면, '노력으로 100점을 뚫을 수 있는 최대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시험장에서는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지만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며 했다면 생각보다 쉽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2021학년도 수능 직전에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43~45]

이번에도 두 작품에 대한 <보기>가 있네요. 미리 확인해봅시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두 작품은 ‘공기’와 ‘바람’의 속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죠? 혹시나 이런 내용이 보이면 체크하면 되겠어요.

— <보 기> —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나) 작품에 대한 <보기>입니다.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 관점에서 읽어보면 되겠네요.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주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주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음... 네 이번 현대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체크하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선지에서!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뭉툭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이번에는 <보기>를 토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장 안에 갇힌 새가 현대인의 모습처럼 느껴졌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화자는 그 모습을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저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 읽어요. 이 상태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43.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10%	12%	57%	11%

① ‘불려 가는’ 건 바람입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서 있네요. 이를 ‘근거’로 하면, 화자가 ‘불려 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그럼 ‘순응’이라는 반응을 허용할 근거가 전혀 없게 되겠죠? 저와 똑같이 판단하고 있죠?

② 이건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물음’이 어떻게 ‘단정’과 함께 나오니까. 이런 선지를 바로 넘겨 버리는 것이 문학 실력이에요.

③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는 ‘개인적 불행’ 때문에 ‘시대를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둘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어요. ‘원인’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④ ‘없다’의 반복도,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반성’은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반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⑤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 이런 ‘반응’을 허용할 근거가 어디 있나요? 정답률이 낮은, 꽤나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답을 골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44.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60%	9%	16%	6%

① ‘바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괴로움’을 지각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괴로움’이 ‘내면의 흔들림’이라는 건 쉽게 허용이 될 거예요.

② 바람이 자주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발은 반석 위에 섰다는 소리죠? 그럼 ‘바람’이 ‘발’을 ‘반석 위’로 이끌었다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지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답은 계속 이렇게 객관적인 부분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③ ‘공기’는 창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새’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지문에서 '공기'가 '날개'를 떠받쳐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무조건 허용되겠죠. 나름의 주관적 해석을 개입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선지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⑤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 맞고, 창살 사이의 '빈 공간'도 맞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45.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9%	13%	51%	14%

① '창살'이라는 '일상'에 부딪치고 나서야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대단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② 바깥 풍경이 보이는 '안온함'과 창살로 가두고 있다는 '억압성'을 모두 허용할 수 있겠죠? '안온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무언가 따뜻한 느낌은 들어야해요! 문학 실력과 별개로 이 정도의 어휘력은 있어야 합니다.

③ '부지런히' 걷는다고 했으니 '성실한' 생활을 허용할 수 있겠고, 이것이 결국 '날개의 퇴화'를 야기하고 있으니 '잠재력의 상실'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새장 문이 열려도 '걷는다고' 하는데, 이게 '본질 충실'은 아니죠?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기서부터 허용할 수 없고, <보기>에서도 본질을 잃는다고 했을 뿐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고 한 적은 없으니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을 포기하고 공기를 음미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으니, 현대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문제는 아주 쉽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